

<div> <div>더불어</div> <div>민주당</div> </div> <div>보건의료특별위원회</div>		<div> <div></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div> <div></div> </div> </div> </div>

-
-

근거가 부족했음은 물론, 사직서 수리금지 사전 명령 등의 초법적 행정명령 남발로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의학교육을 흔들었으며,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하고, 가속화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의료인을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의학교육 정상화의 의지가 의심받고 해결책이 요원한 시점이다. 지난 10개월간, 의료공백 사태의 방치와 의학교육 혼란의 지속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계, 의학교육계,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 가족, 환자를 포함한 의료소비자들이 모두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주권자인 국민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막고 탄핵을 선택한 지금, 과거 윤석열 정권의 의료실정은 오롯이 국민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해결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의료대란의 희생자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대생의 일방적 피해를 양산해서도 안되는 시점이다.

- 이에 따라, 보건의료특위는 본 토론회를 주최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흔들리는 의학교육을 바로잡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논의가 형식적인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본 토론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 본 토론회는 강창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주환 보건의료특위 위원(서울의대 교수)가 <2024 의

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강희경 (前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교수), ▶고상백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성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변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류옥하다 (前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안중경 (의대생 학부모),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하은진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 교수), ▶홍승권 (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성공회대 교수)▶황지영 (한국 의학교육학회 이사,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토론회 진행(안)은 총 180분 동안 이루어질 계획이며, 약 150분간을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시간으로 배분했다. 유의미한 대화의 결과 도출을 위해 시간 운영은 당일의 토론회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보건의료특위를 이끄는 강청희 위원장은 “어느 누구도 **더이상 의학교육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국민들을 의료대란의 피해자로 방치해선 안되겠다. 소모적인 사회적 혼란을 막는 노력에 모두 마음을 열고 함께 해 나가야 한다. 그 전환점을 이끌어 내겠다**” 며 각오를 밝혔다.

[첨부]

1. 국회토론회 포스터 1매 끝.

내란극복,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2024년 12월 24일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주 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문 의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이주현(010-8089-1000)
프로그램	<p>좌 장 강청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p> <p>발 제 오주환 교수 서울의대 교수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p> <p>토 론 강희경 교수 前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고상백 교수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경민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성근 교수 전국의과대학교수 협의회 대변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주 대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류옥하다 前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안종경 의대생 학부모 유미화 상임대표 녹색소비자연대 하은진 교수 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신경외과) 황지영 이사 한국의학교육학회 정보이사, 동국대학교 의학교육학교실/산부인과학교실 교수</p>		